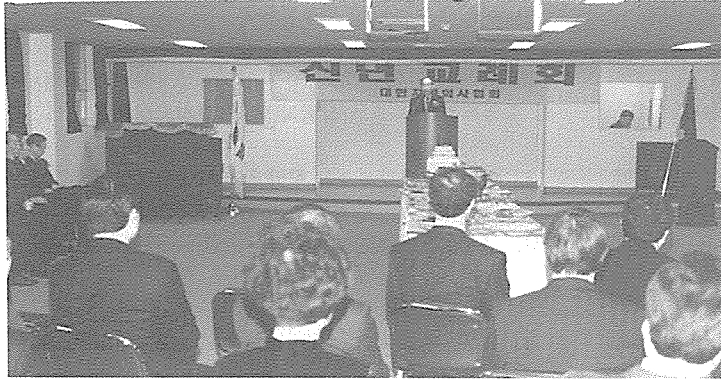


'96 신년교례회 성료 - “ 화합과 단합하는 치과계 ”



'96년 신년교례회 성료

병자년 새해 치과계 신년교례회가 지난 5일 6시 30분 치협 3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교례회에서는 60여명의 치과의를 비롯 기공사, 치재상사 대표 등 70여치과인이 참가하여 『 화합과 단합하는 치과계』를 다짐했다.

김정균 치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합하고 단합하는 치과계 풍토를 조성하면서 치과인의 위상 확립과 권익옹호에 적극 나서자고 했으며, 지난해 치과계가 안정적인 발전을 해온 것은 회원들의 저력과 협조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시한 뒤 치과계 현안문제인 전문치의제를 이해와 타협, 양보로 현명하게 해결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신년교례회엔 김동순, 지현택, 이중수, 윤홍렬씨등 전회장과 유해

영(대한여자치과의사회장), 박용의(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오동현(대한치과기재협회장)씨등 관계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대한소아치과학회 정총 성황

대한소아치과학회는 지난 12일 오후 6시 30분 서울치대 1층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대한소아치과학회도 인정의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날 열린 정기총회에서 『인정의제도에 관 규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부칙을 통해 만일 전문치의제가 실기될 경우에는

인정의제도 규정을 철회하고 전문의 규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인정의 시험은 매년 1회씩 시행하고 인정의 자격 인정증을 5년마다 갱신토록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전광선 부회장을 신임회장에 선출하고, 양규호 간사와 한세현 총무이사를 부회장에 허만욱 감사와 이선호 명예회장을 신임감사에 각각 선출했다.

이어 '96년도 예산은 6천 4백 28만여원이 통과되었다.

고려대학교 임플란트 연구회 (KUIRC) 제4회 연수회 성료

고려대학교 임플란트 연구회는 제4회 연수회를 6명의 강사진 및 외부강사와 17명의 연수회원의 참여로 1995년 4월 1일부터 1996년 1월 6일까지 총 80시간의 전 과정을 구강외과 권종진교수(고대안암병원 과장), 보철과 신상완(고대구로병원 과장), 구강외과 김성문 교수, 보철과 이정열 강사와 연수회원들의 열의와 성의로 무사히 마쳤다.

이번 연수회는 기존의 3차에 걸친 연수회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연수회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험을 주고자 1년 과정으로 마련되었다. 초기 5회는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기초지식과 외과적 이론



고대 임플란트 연구회(KUIRC)

및 실습, 각종 골유착성 Implant system에 대한 강의 및 실습과정을 거친 후, 연수회원이 환자에게 직접 Implant 시술을 시행하였고, 후기 5회에 걸쳐 2차 수술, 인상채득, 최종 보철물의 장착 등의 임상적 과정을 강의 및 model 실습, 연자들의 실습, 연자들의 시술에 관한 observation 및 연수 회원들이 환자에게 직접 시술하는 과정을 거쳤다. 아울러 sinus lift 및 nerve repositioning에 의한 Implant 식립 골이식 및 각종 이식재의 사용방법과 같은 difficult case에 대한 강의와 observation도 시행되었다.

4회 연수회를 무사히 마친 고려대학교 Implant 연구회는 금년 1996년도 3월에 시행될 제2회 골유착성 임플란트 심포지움과 제5회 연수회에서 보다 나은 모습으로 연수회원들에게 다가가리라 기대된다.

■ 비스코사 서병인씨 1억 기탁

세계적인 치과복합레진계 제조회

사인 미국 비스코사의 서병인 사장은 지난 26일 김광남 서울치대학장에게 1억원을 회사키로 약정했다.

이 기금은 3차례에 걸쳐 매년 3분의 1씩 납부하게 되며, 미국 국적 회사이기 때문에 외국에 기부하는 규정이 까다로와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차분 4만 2천달러(3천 2백여만원)를 전달했다.

김광남 학장은 이 기금은 서병인 연구기금으로 이름을 붙여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비스코사와의 산학협동으로 공동연구분야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치대 교육연구재단 기금은 김광남 학장이 취임한 이래 10억 8천여만원이 약정된 상태이며, 지금까지 6억 1천 1백여만원이 모금된 상태이다.

현재까지 1억이상 교액 약정자는 치대출신으로 김찬숙 서울치대 동창회장(1억원)과 서울치대동창회 회장단(1억원)이며 기업인으로

는 해태그룹 박건배 회장(6억원 약정 2억원 납부)과 이번엔 서병인 비스코사사장(1억원 약정, 3천 2백만원 납부)이다.

■ 연세치대병원 개원

국내 최대규모의 현대식 시설을 갖춘 연세치대병원이 지난 18일 개원식을 갖고 진료에 들어갔다.

93년 10월에 착공하여 2년여만에 완공된 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5천 1백 90평 규모로 원내에는 임플란트, 악안면교정, 노인치과, 장애인 감염클리닉 등 5개의 전문클리닉과 첨담기기를 갖추고 있다.

『새로운 개념의 젊은 병원』이라는 목표아래 진료기록의 완전 전산화로 전환 및 신속한처리와 각 임상과간의 진료내용의 교류도 즉시 가능하고 환자들의 대기시간을 극소화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총 9층 규모의 연세치대병원 지하 1, 2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1층은 원내생 진료실과 장애인 클리닉 2층은 소아치과, 방사선과, 구강내과 3층은 보철과, 치주과, 구강위생과 4층은 보존과, 교합과, 노인치과, 및 종합클리닉 5층은 구강악안면과, 교정과 임플란트 및 악안면교정, 감염클리닉을 비롯하여 일일 입원실 및 임상진료시설로 이용되며, 6~7층은 행정부서, 강당 및 연구실등으로 활용된다.